社 說

대화를 통한 화합·협력의 계기

— 경희 한마음과 대동제를 맞이하며

사유와 결심의 계절이 왔다. 지금 캠퍼스 곳곳에서는 지난날의 갈등과 마음의 아픔을 털고 대화와 단결을 통한 하나되기 운동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기쁜소식이다.

우선 지난 9월5일 실시되었던 총학주최 교수·학생 등반대회는 사제간 신뢰회복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하나의 선을 긋는 획기적인 행사였다. 이제 이를 계기로 캠퍼스에는 하나되기 움직임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문리대에서도 학생과 교수들이 마음을 열고 막걸리를 가졌하고, 경희 한마음 추진위원회에서는 경희체육진흥기금 마련과 경희 모든 구성원의 결집을 위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총학에서는 이번 대동제의 본뜻을 경희화합과 전진에 두고 있을뿐만 아니라 각학회 파티위에서도 그와같은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시작은 작지만 그 뜻은 크고 원대하다. 우리의 지난날의 피폐된 대학문화를 생각하면 그 외와는 대유로다고 하겠다. 언제부터인가 대학가에는 대화가 끊기고 불신과 갈등이 잡초처럼 무성히 자라고 있었다. 그것은 사회 정치 문화적 상황들과 결코 무관하지 않았다. 교수와 학생간의 순수한 관계가 유신이후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들 사이는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가 봉쇄된 가운데서 랍내 사제관계는 사람과 존경이 아닌 불신과 외심의 관계로 바뀌고 말았다.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기회를 박탈당한 학생들은 거리로 뛰어나가게 되고 이를 막으려는 물리적 힘은 캠퍼스에 최루탄과 화염병이 난무하도록 만들었다. 실로 불행한 일이었다. 사실 그동안 제자와 교수 학교와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결과적으로 조장되었다는 의구심도 버리기 어렵다.

학원자율화라는 학원 자유화 조치 조차도 때론 그 본질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타의에 의해 교수와 학생들이 대립하는 양상까지 낳게 되었던 것이다. 적잖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감놓수 없는 상황이라서 학생과 선생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쌓이는 것은 무력함과 좌절감 뿐이었다. 어느학생은 4년 내내 졸업할때까지 교수연구실에 한번도 찾아간적이 없었다고 하는 괴로운 고백의 소리까지 듣게 되었다.

그런 상처들이 미처 치유되기도 전에 지난학기 우리모두가 패배자임을 자인하고 남비적 대결을 낳았던 동물금투쟁의 와중에서 서로의 골은 깊어지고 상처는 아프게 패었던 것이다.

되돌아 보건대 이런 아픔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우리들의 관계는 대립관계가 아니며, 협력과 사랑의 관계이다. 그런데도 이토록 메마름에 시달려야 했던 근원적은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대화의 부재와 의사소통이 막힌 상태에서 오는 불신과 불만의 증폭가 바로 원인이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것은 대화를 통한 신뢰의 회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행사들과 경희한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합과 대화의 운동과 그 조짐들을 적극 환영한다.

그것은 누가 누구를 이용하자는 것도 누가 누구를 이기자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모두의 승리를 통하여 대학의 발전과 대학문화의 증흥, 그리고 나자신의 보람을 낳자는데 그 목적이었다.

이제 불신을 털고 아름다운 우리모두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새로운 전진의 기틀을 마련하자. 검찰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며 우리모두의 것이다.

실천력 있는 중립화 필요하다

— 대통령의 탈당·중립내각선언에 부쳐

최근 노태통령의 집권당 탈당자 선거중립내각 실시선언은 안팎으로 적지않은 파장을 끼치고 있다.

세칭 이 '9·18선언'은 선언의 성격상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그것이 불러온 영향도 매우 다양했다. 일차로 지난 21일 민자당 소속의 경기도의회의원 7명이 민자당을 탈당했고 뒤이어 서울시 의원 20명의회씨도 탈당을 예고했다. 그들은 "노태통령의 중립선거를 위한 내각구성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히고 정국혼미의 잘못을 지도부의 탓으로 돌렸다. 더불어, 지난 25일에는 인기부가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정보업무에만 치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당적포기와 앞으로 엄격한 관리자로서 남겠다는 의지에 많은 사람들이 적지않은 혼란과 기대를 갖고 있는듯 하다. '9·18선언'뒤에는 보이지 않는 민자당의 내부동요와 내분풍의 조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일단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일단 환영하기 전에 노태통령이 밝힌대로 6·29로 시작했던 6공이 9·18선언으로 매듭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선거가 보장되여야 한다는 것이다.

9·18선언이 인정을 받는가 아니면 공연불에 지나지 않는지 평가를 받는 것은 올해 말에 있는 대선에서의 공정성에 있다고 할수 있다. 노태통령의 당적포기도 중립내각 구성도 정보기관의 선거불개입도 군의 정치적 중립도 공정성이 지켜질 때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정치론에 몇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실제로 노태통령이 당을 떠나고 중립내각을 구성한 것이 중립을 위한 것이라면 먼저 큰폭의 중립내각개편의 단행이 필요하다. 단지 선거관련부서만의 개편이 아닌 폭넓은 개혁과 더불어 개편으로도 중립적인 사람들이 등용되는 수 있어야 한다. 물론는 정보기관의 정치불개입 선언을 확실하게 지키라는 것이다.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의 그동안 논총을 받아오던 것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더불어, 진정으로 관권선거를 포기하고, 중립을 지키려고 한다면 중립내각뿐 아니라 단체장 선거에 실시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중립내각과 함께 단체장 선거는 말 그대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다.

최근에 상황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내용과 비슷하나 '소설같은 현실'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물론 현실이 한낱 이야기로 전락관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노태통의 9.18선언이후이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 노태통령의 마지막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말과 선언만이 아닌 행동과 실제의 후속조치를 보여주어야 할것이다. 그것이 공평 최대한 선거로의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는 길이다.

매체비평

관권개입 조기마무리 유도하는 언론

'국민전환 겨눈 고단위 처방, 기존여권 반발 강수, 개혁선택' (중앙일보 16일 3면), '정면돌파, 국면전환 모색'(경향신문 17일 2면), '김총재 결단에 기대한다'(경향신문 17일 사설)

지난주 일간지들을 살펴보면 집권당을 위기에 처하게 한 관권부정선거파동은 지난 16일 있었던 김영삼 민자당총재의 기자회견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도하였다.

한준수 전 연기군수가 관권부정선거를 폭로한지 10여일이 지난 후 검찰은 "관권부정선거는 지방파장의 독자적 시발로 진행된 것이며 이종국지사는 불법선거운동 방조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발표했다. 같은 시기에 나온 것이 김영삼 총재의 16일 기자회견이라면 이것은 집권당이 관권부정선거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집권당의 위기때마다 하나의 미봉책으로 대두된 것이 내각개편이다. 이러한 내각 개편도 그들이 말하는 참신한 인재의 등용이 아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라는 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사실속에서 언론들은 다시금 개각을 집권당의 대담한 결단인 양 이야기하고 있다.

중앙일보의 경우 9월16일 사설에서 중립적이고도 선거내각의 성격을 띠는 대담한 개각이라며 '관권부정 사건에 대한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다. 또한 9월17일자 한국일보 3면 해설기사에서는 '연기군 관권선거 파문의 수습을 위한 처방전의 의미와 함께 자신의 '거물정치' 표방에 따른 실천적 의지의 강조에 역점을 둔 것'이라며 김영삼 총재 발언에 대해 지지를 표한고 있다.

같은 내용의 글이 9월17일자 경향신문 사설, 중앙일보 3면, 16일자 동아일보 사설에도 실려 관권부정선거의 의혹을 해소·규명하기 보다는 국민들의 이에 대한 관심전이를 유도하고 말았다.

내각 개편이 대선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반면, 내각 개편은 관권 부정선거파동의 미봉책일 뿐, 본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보도도 있다.

문화일보 17일자 사설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정치적 구조가 대통령 중심제이며 모든 행정적 지시와 공무원 인사권이 근원적으로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다.

이번 연기 관권부정선거도 마땅히 대통령으로부터 적어도 자신의 인책까지도 포함한는 사과가 있어야 했으며…"라며 이번 김총재의 기자회견은 푸른 하늘에 뜬 구름 잡기식이라며 주장했다.

또한 같은 날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이종국이라는 현지지사가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이다. 사건의 핵심자인 이지사문제에 대해 김총재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논지를 전개한다고 있다.

집권당의 생존이 달린 대선이 코앞에 닥친 시점에서 관권부정선거 폭로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집권당 총재의 내각 개편안은 그들이 내세우는 최선의 미봉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보수일간지들이 '최선의 방책' '대권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한 결단'등으로 집권층의 의도에 동조하는 태도는 올바른 보도태도라 할 수 없다. 한국 매체들은 야권이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선거의 관권개입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내용을 왜곡적으로 보도하여, 집권당의 입김에 놀아나는 형각은 이제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서동국 記者〉

집권세력과 공생하는 '악어새'

—정보기관의 정치관여에 대한 소고

◇지난 14대 총선당시 선거개입을 주도한 인기부장

사론

정권교체기에 접어들면서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이 또 다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9월19일 오후 6시경 경희대 정문 앞에서 학생들에게 적발된 3명의 기무사 소속 수사관들의 주머니에는 9월초 서강대에서 열렸던 학생집회의 상황이 시간대별로 메모된 쪽지와 서울검찰청이 작성한 주요 시국수배자 명단이 들어 있었다.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에서 아직도 민간인 사찰을 계속하고 있다는 증거가 다시 확인된 것이다. 3·24총선 직전에도 이지문 중위의 '군부재자투표부정 폭로사건'에서도 기무사의 서신검열, 기무부대요원의 기표소 상주 등이 폭로된 바 있었다.

사정은 인기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양심선언에서 인기부가 주도하는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총선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지난 총선 직전에는 인기부요원이 야당후보를 비방하는 흑색선전물을 돌린 충격을 주기도 했다.

5공때 위세를 떨쳤던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은 6공초국으로 접어들면서 적어도 외형적으로 수그러드는 양상을 보였다. 5공청산의 주요 대상이 되어 곤욕을 치렀던 인기부는 6공 출범과 더불어 국내 정치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고 기무사의 경우 90년 10월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로 이래도 기무사로 바뀌며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을 중단하겠다고 다짐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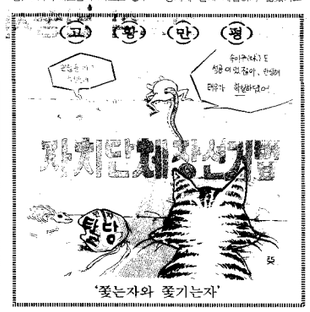
국민에 대한 약속을 무시한 채 최근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은 5공시의 정보정치, 공작정치가 이제도 수면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로서 국민의 경각심을 강하게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엄마전 대통령이 민자당 탈당과 정치중립 선언을 발표하자 뒤이어 9월20일 인기부에서는 주요간부회의 결의를 통해 완전한 정치중립을 다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 사건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러한 인기부의 '중립선언'에 얼마나 신뢰를 보일지 의문이다. 말로 하는 다짐이 귀를 기울이기에는 이제 지쳤만큼 지쳤다.

말만으로 믿을 줄 수 없는 것은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이 너무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최근 진상이 밝혀지고 있듯이 백범 김구 암살 사건의 배후에는 당시 군 정보기관인 국군 정보국이 개입해있었는데 이 국군정보국은 이후 특무대→보안사→기무사로 대를 이어왔던 것이다. 특히 80년 5·3 정출범 당시에는 보안사가 민정당창당, 언론통폐합, 심지어는 여당 전국구의원 인선에까지 개입했을 정도였다. 인기부의 정치개입도 전신인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무소불위의 기세로 이어져 왔다. 최근 몇 해만 보더라도 ▲87년 대선 전날, '김대중후보 사퇴' 등이 폭로된 바 있었다.

사정은 인기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양심선언에서 인기부가 주도하는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총선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지난 총선 직전에는 인기부요원이 야당후보를 비방하는 흑색선전물을 돌린 충격을 주기도 했다.

5공때 위세를 떨쳤던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은 6공초국으로 접어들면서 적어도 외형적으로 수그러드는 양상을 보였다. 5공청산의 주요 대상이 되어 곤욕을 치렀던 인기부는 6공 출범과 더불어 국내 정치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고 기무사의 경우 90년 10월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민간인 사찰 폭로'로 이래도 기무사로 바뀌며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을 중단하겠다고 다짐했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을 무시한 채 최근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은 5공시의 정보정치, 공작정치가 이제도 수면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로서 국민의 경각심을 강하게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엄마전 대통령이 민자당 탈당과 정치중립 선언을 발표하자 뒤이어 9월20일 인기부에서는 주요간부회의 결의를 통해 완전한 정치중립을 다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 사건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러한 인기부의 '중립선언'에 얼마나 신뢰를 보일지 의문이다. 말로 하는 다짐이 귀를 기울이기에는 이제 지쳤만큼 지쳤다.



'쫓는자와 쫓기는자'

'권력 아니면 패자' 논리 정치개입 유발
민주적인 정권교체로 해결가능성

말만으로 믿을 줄 수 없는 것은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이 너무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최근 진상이 밝혀지고 있듯이 백범 김구 암살 사건의 배후에는 당시 군 정보기관인 국군 정보국이 개입해있었는데 이 국군정보국은 이후 특무대→보안사→기무사로 대를 이어왔던 것이다. 특히 80년 5·3 정출범 당시에는 보안사가 민정당창당, 언론통폐합, 심지어는 여당 전국구의원 인선에까지 개입했을 정도였다. 인기부의 정치개입도 전신인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무소불위의 기세로 이어져 왔다. 최근 몇 해만 보더라도 ▲87년 대선 전날, '김대중후보 사퇴' 선 당시 정주일 국민당후보 사퇴 압력, 권정달 전 의원 출마 저지 압력 등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이 잦을 있고 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치개입 중단을 공언하는 이들 정보기관이 '정치개입의 '유혹'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하는 데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인기부든 기무사든 법적으로는 분명히 정치개입을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정보기관 위에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대통령만이 있다. 인기부는 정부체계상 공식적으로 대통령직속기구로 편제되어 있다. 기무사의 경우 지휘 계통상으로는 국방부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령관이 직접 대통령을 독대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으며 심지어 국방장관까지도 국방부 담당인 보안부대장에게 동향파악을 받아야 한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이들 정보기관은 오직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집권자인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앞서 지적한 정호용, 권정달 씨 등과 같이 여권의 막강한 실력자였던 시절들도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에 어긋나면 언제라도 공작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도 이들 정보기관의 편향한 정치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진정한 의지와 결단이 아니고서는 이들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을 막기 어려운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정치구조는 40여년이 넘도록 특정세력의 권력독점이 계속되면서 '전무 아니면 전무'의 논리가 지배하는 상황이다. 즉 집권하면 원없이 권력을 휘두르게 되고 그 반대급부로 반야 권력을 놓치게 되면 '전무'의 상태 즉 생존이 불투명한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집권자의 '절대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이 '필수'해지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집권자의 결단을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 순진한 발상이다.

문제는 상당히 구조적으로 꼬여 있다. 결국 정치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의 핵심은 여야 정권교체의 경험이다. 권력순환계통이 동맥경화에 빠져 사황을 겪고 정권유지에 골몰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정권교체의 전통을 세워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집권자의 결단이나 어떤 법적 장치보다도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확실한 길이라고 하겠다.

김 정 태
〈민족민주운동연구소·연구원〉

좋은 기업, 그곳엔 좋은 문화가 있습니다 (캔미팅)

캔미팅 (Can Meeting)은 부사장을 포함한 임정한 조직 구성원들이 수시로 임장의 업무장소를 떠나 모든 업무활동과 자단된 장소에서 회사업무는 물론 개인의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허심탄회하고 진지하게 토의하는 선경만의 독특한 기업문화입니다.
현재 선경의 모든 부서에서 실시되고 있는 캔미팅은 하의 상달을 통해 조직의 경직화 및 관료화를 미리 막고 목표에 대한 일체감 조성은 물론 스스럼없는 의견교환을 통해 인간적 유대감을 형성, 한층 한 차구의 정신을 심원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세번씩 평사원으로 돌아가는 정부장"

마른 체구때문에 훤칠한 키가 더욱 커보이는 신경인데스트리 인사부 정태수부장.
매사에 빈틈없고 야무진 일처리 때문에 '까다로운 부장'으로도 통합니다.
이제 40대 중반이 다된 정부장이지만 일년에 세번씩 열리는 인사부 캔미팅에서는 평사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캔미팅에서는 직위의 상하 구별없이 모두가 대등한 입장에서 허심탄회하고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장은 그때마다 때아닌 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평소 산을 싫어하는 정부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산악반 산행에 동참하게 된 것도 지난 봄 캔미팅때 김미순씨의 건의에 의해서였습니다. "부장님은 형식적으로 가입하셨을지도 모르지만 산악반의 일원입니다. 전체 산악반의 단합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됩니다"
산악반 리더격인 김미순씨의 당찬 항의에 쩔쩔매던 정부장. 요사이 평소보다 결재서류의 처리 시간이 훨씬 빨라진 것은 엄대리의 건의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캔미팅 날이면 깐깐한 정부장도 곤경에 처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서로의 가슴속에 신뢰의 돌을 하나 둘 쌓아가는 과정임을 잘 알고 있는 정부장은 직원들과 같은 자리로 돌아가는 캔미팅이 기다려지기만 합니다.

SUNKYONG
鮮京그룹